

# 『隔簾診線訣』에 記載된 醫易學的 運用에 關한 研究

金基郁·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關於『隔簾診線訣中』的 醫易學的 運用之研究

韓國有一本醫書叫『神授秘傳隔簾診線訣』。大概是自從古代傳下來的。此書之內容是把患者與大夫隔開于室內與室外，也不進行聞診和問診。只腕上係的線中來的感覺來判斷病症。又按此病症提示治療法的秘訣。

我們常常可聞到‘古代的大夫不僅王后，而且將相的妻妾，也只靠絲線來診好脈，可現在怎麼也找不到那種有名的大夫’我想此話起源於線訣。

但從實際來看，不得不懷疑‘怎麼能用一絲線來正確判斷患者的脈象，尤其是以此判斷來所定下來的診斷與治法又能信到甚麼程度呢。’

結果得知了『隔簾診線訣』上所敘述的理論是基于“周易”的理論之事，要訣形式來敘述的。所以一般人很難理解。因此我要對此而介紹。

首先通過線訣的提要體例，作卦法及原文一例，在醫易學的立場上，爲了六爻，生理，病理，診斷，豫候，方劑和針灸方面的應用。

還有考察了卦象的納甲，納支，世應，飛神，伏神，種類的作用與利用卦象的有關醫易書的作用。

Key Words : 『神授秘傳隔簾診線訣』, 診線, 要訣, 『周易』, 作卦法, 原文一例, 醫易, 卦象, 六爻, 納甲, 納支, 世應, 飛神, 伏神.

접 수 : 2000년 9월 22일

채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김기욱·박현국,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054-770-2664, mazel@chollian.net)

## I. 序 論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사료되는 醫書인 『神授秘傳隔簾診線訣』(이하 『隔簾診線訣』 또는 『線訣』로 簡稱)은 환자와 의사를 각각 室內外에 격리하여 聞診이나 問診을 행하지 않고, 단지 환자의 팔목에 絲線을 맺어 실에 감응되는 것으로써 病證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한 秘訣이다.

항간에 '옛 의원들은 王后는 물론 將相의 妻妾까지도 실맥<sup>1)</sup>만으로도 병을 잘 진찰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의사는 찾아 볼 수 없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 아마 그 기원이 이러한 線訣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환자의 脈象 변화를 한 가닥의 실을 통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더욱이 이에 따른 診斷과 治法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隔簾診線訣』에서 구사한 이론이 『周易』 이론에 기반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要訣 형식으로 기술하였기에 난해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 논문을 전개한다.

먼저 본문에서는 線訣의 提要와 體例, 作卦法 및 原文 一例를 통하여 醫易學의인 입장에서 六爻, 生理, 病理, 診斷, 豫候, 方劑 및 針灸 방면의 응용을 살펴본다. 고찰에서는 卦象의 納甲, 納支, 世應, 飛神, 伏神, 種類 등에 따른 운용과 더불어 卦象을 이용한 醫易學의 運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II. 本 論

1) 『隔簾診線訣』이란 제목에 언급되듯이 '발을 드리우고 실맥(線)을 통하여 환자를 살핌'에 있어, 실맥(線)에 관하여 내용은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논자의 생각으로는 『線訣』에 기재된 醫易學의인 內容을 파악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진단한다면, 실맥(線)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하나의 양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의사가 환자의 병증을 의역학적으로 추단하고 아울러 望聞問診으로 형태로써 진단하였기 때문에 실맥(線)의 형태가 어떠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 1. 『隔簾診線訣』의 內容提要와 構成

### 1) 內容提要

『序文』에 의하면 '嶺南의 巨匠인 安東 汾川 지방 李 鳳岡<sup>2)</sup> 선생이 密受한 秘訣로 十數代前에 선생의 조상인 某公이 山谷, 石間에서 우연히 만난 活人佛 六辛道士로부터 神鍼(一鍼百中, 後傳許任云), 運命布(起死回生, 所在不明)과 함께 받은 醫家 三寶 가운데 하나이다.'<sup>3)</sup>고 하였다.

線訣은 序論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와 환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단지 환자의 팔목에 絲線을 맺어 그 실에 감응되는 神氣로써 診斷하고 이에 따른 치료를 제시한 秘訣로 易學理論에 바탕한 醫書이다.

『周易』의 原有卦爻는 先後天八卦를 합쳐 64卦 384爻에 불과하지만, 『焦氏易林』에서 이를 확대 해석하여 384卦 2304爻로 推衍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黃帝內經』에서 '數之可千, 推之可萬'<sup>4)</sup>이라 한 陰陽變化之妙와 상통하며, 線訣에 舉例된 36卦 198爻로써 요약 서술하고 아울러 이에 관한 解釋과 易學의 要訣을 망라하고 있다.

線訣에서 응용된 作卦法은 모두 五運六氣와 加臨數로써 裝卦하여 動變·世·官·諸爻로 疾病의' 所崇과 主客本末을 밝히고 여기에 다시 旺·相·休·囚와 相生, 相剋으로써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환자 本名(나이)인 天干의 五運數와 來診時支의 六氣數로 裝卦하고, 다시 世爻의 加臨 數로 動과 變을 살펴 卦上에 드러나는 결과를 종합하여 脈과 證을 말

2) 『韓國醫學史』와 『韓國醫藥人名事典』에서 李鳳岡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논자가 서론에서 밝혔듯이 『線訣』의 醫易學의인 運用과 韓國의 醫書임에는 否認할 수 없기에 감히 소개하는 입장에서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3) 李鳳岡, 『神授秘傳隔簾診線訣』, 杏林書院, 檀紀4290年, pp.3~6.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五運行大論』, 東洋醫學研究院, 1981年, p.129.

해주고 依方處置함에 있어, 「脈象」, 「原因」, 「症狀」, 「藥物治療」, 「針灸療法」 등 13가지 방면의 醫易的인 解說과 治療方法을 例示하고 있다.

## 2) 構成

「鳳剛先生序」와 「凡例」에서는 「不知易, 不知醫」로 「醫易同源」의 觀點을 두고 「非其人不傳」을 강조하여 「仁術」의 道를 펼침에 庸醫에 관한 경계심을 논하였다<sup>5)</sup>.

總論에는 「應用方式의 解明」에서 세 가지 作卦法을 밝혔으며<sup>6)</sup>, 「立方例의 解明」에서는 藥物處方에 관한 六氣的인 解釋을 가지고 있으며<sup>7)</sup>, 「診線術式總索引表」에서 卦象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sup>8)</sup>.

各論에는 「甲己生人診療法」, 「乙庚生人診療法」, 「丙辛生人診療法」, 「丁壬生人診療法」, 「戊癸生人診療法」에 관한 要訣을 논술하고 있으며<sup>9)</sup>, 36之卦에 따른 醫易的인 論述과<sup>10)</sup> 附錄인 「啓蒙節要」에서 「十天干所屬」, 「十二地支所屬」, 「八卦名字及所屬方位」, 「八卦次序」, 「八卦象例」, 「六親相生相剋法」, 「安世應訣」 등 26가지 醫易에 관련된 항목을 논술하고 있다<sup>11)</sup>.

## 2. 作卦法 및 原文 一例

### 1) 作卦法

#### (1) 固定原式의 解明

이 작괘법은 『격림전선결』의 기준형으로 환자의 直間接 또는 男女를 막론하고 먼저 환자 本名(나이)인 天干의 五運數와 來診時支의 六氣數로 裝卦하고, 다시 世爻의 加臨 數로 動과 變을 살펴 卦上에 드러나는 結果를 종합하여 脈과 證을 말해주고 依方處置한다.

그러나 此訣에서는 「變通在人함에 있어 此法에만 의존하지 말고 四診合參의 賢明한 處置를 하는 것이 萬無一失의 良策」<sup>12)</sup>이라 하여 四診合參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예1】丁酉年(단기 4290년) 2月 15日 17~18時에 甲子生이 진단을 요청할 경우는 外卦는 甲子生(土五巽風)이며, 內卦는 子及酉時(火二兌澤)이기에 風澤中孚(䷛)卦가 구성된다<sup>13)</sup>.

【도표 1】 固定原式에 의한 裝作表

本命	甲己					乙庚						
天干	生人					生人						
來診時刻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該當卦名	中孚之損	巽之姤	漸之家人	益之觀	小畜之家	家人之賁	歸妹之兌	恒之升	小過之恒	震之豫	大壯之豐	豐之小過
卦順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一〇	一一	一二

本命	丙辛					丁壬						
天干	生人					生人						
來診時刻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該當卦名	履之訟	姤之鼎	蹇之姤	无妄之履	乾之姤	同人之无妄	睽之損	鼎之未濟	旅之離	噬嗑之无妄	大有之鼎	離之噬嗑
卦順	一三	一四	一五	一六	一七	一八	一九	二〇	二一	二二	二三	二四

本命	戊					癸						
天干	生人					生人						
來診時刻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該當卦名	損之中孚	蠱之鼎	艮之賁	頤之剝	大畜之蠱	賁之離	兌之歸妹	大過之困	咸之革	隨之萃	夫之需	革之隨
卦順	二五	二六	二七	二八	二九	三〇	三一	三二	三三	三四	三五	三六

#### (2) 變法一의 解明

同命生人이 同一한 時間, 同一한 場所에 와서 診察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先診者는 固定原式에 의하여 作卦하나, 後診者는 先診者에게 적용된 卦의 同爻와 相合되는 干支로 作卦한다.

【예2】己巳生 二人이 午時에 왔을 경우 先診者는 固定原式에 따르면 益之觀卦(䷓ ䷓)에 해당하며, 後診者는 【도표 2】의 姤之鼎卦(䷓ ䷓)에 해당한다<sup>14)15)</sup>.

5) 上揭書: pp.7~11.  
 6) 上揭書: pp.35~40.  
 7) 上揭書: pp.40~43.  
 8) 上揭書: pp.21~33.  
 9) 上揭書: pp.21~33.  
 10) 上揭書: pp.44~108.  
 11) 上揭書: pp.216~223.

12) 上揭書: pp.96~97.  
 13) 上揭書: pp.36~38.  
 14) 上揭書: pp.38~39.  
 15) 『周易·繫辭上傳第四章』에서 「極數知來之謂占, 通變之

【도표 2】 第一變法에 의한 裝作表

本命天干	甲巳 生人						乙庚 生人								丙辛 生人					
來診時刻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該當卦名	家人之賁	噬嗑之无妄	履之訟	姤之鼎	咸之革	家人之賁	家人之賁	乾之姤	大有之鼎	姤之鼎	咸之革	姤之鼎	豐之小過	同人之无妄	乾之姤	漸之家人	恒之升	旅之離		
卦順	六	二二	一三	一四	三三	六	六	一七	二三	一四	三三	一四	一二	一八	一七	三	八	二一		
備考	中孚之損	巽之姤	漸之家人	益之觀	小畜之家人	家人之賁	歸妹之兌	恒之升	小過之恒	震之豫	大壯之豐	豐之小過	履之訟	姤之鼎	蹇之姤	无妄之履	乾之姤	同人之无妄		
本命天干	丁壬 生人						戌生人								癸生人					
來診時刻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子及酉時	丑及戌時	寅及亥時	卯及午時	辰及未時	巳及申時		
該當卦名	乾之姤	大畜之蠱	履之訟	震之豫	恒之升	旅之離	鼎之未濟	无妄之履	履之訟	姤之鼎	恒之升	无妄之履	小畜之家人	大畜之蠱	履之訟	姤之鼎	小畜之恒	旅之離		
卦順	一七	二九	一三	一〇	八	二一	二〇	一六	一三	一四	八	一六	五	二九	一三	一四	九	二一		
備考	睽之損	鼎之未濟	旅之離	噬嗑之无妄	大有之鼎	離之噬嗑	損之中孚	蠱之鼎	艮之賁	頤之剝	大畜之蠱	賁之離	兌之歸妹	大過之困	咸之革	隨之萃	夬之需	革之隨		

(3) 變法二의 解明

환자의 年齡을 알지 못할 때 적용하는 變法이며, 이러한 경우는 問病時의 干支로 作卦한다.

【예3】 甲日巳時에 來診한 경우는 【도표 3】에 의하면 己巳에 해당하며 【도표 4】의 家人之賁卦(䷗)에 해당한다<sup>16)</sup>.

謂事"라 하였고, 『繫辭上傳第八章』에서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라 하여 象數의 意義와 占을 쳐서 未來를 推衍하는 論據를 밝히고 있다. 論者는 『격려진선결』의 變法1에 따라

風雷益					
上	五	四	三	二	初
六	七	一	五	五	五
四	四	四	三	二	八
屯	頤	无妄	家人	中孚	觀

風地觀					
上	五	四	三	二	初
六	七	一	五	五	五
八	八	七	七	六	四
比	剝	否	漸	渙	益

天風姤					
上	五	四	三	二	初
二	三	五	一	一	一
五	五	五	六	七	一
大過	鼎	巽	訟	蹇	乾

地風鼎					
上	五	四	三	二	初
七	六	四	八	八	八
五	五	五	六	七	一
蠱	井	恒	師	謙	泰

같은 之卦의 變化를 살펴보았지만, 益卦와 姤卦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鳳岡先生께서 주장한 同爻의 天干合과 地支合을 통하여 卦象 및 象數의 變化를 연구하여 보았지만, 此訣에서 논술한 結果가 相異하였다.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더욱 깊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표 3】 遁時早見表<sup>17)</sup>

時日干	時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甲巳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乙庚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丙辛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丁壬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戊癸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도표 4】 第二變法에 의한 裝作表

16) 上掲書: pp.39~40.

17) 白雲飛, 『六爻學全書』, 東洋書籍, 1976年, p.50.

【도표 4】 第二變法에 의한 裝作表

來診時刻	甲子時	戊時	申時	午時	辰時	寅時	乙丑時	亥時	酉時	未時	巳時	卯時	丙寅時	子時	戌時	申時	午時	辰時	丁卯時	丑時	亥時	酉時	未時	巳時	辰時	寅時	子時	戌時	申時	午時														
該當卦名	中孚之損	巽之姤	家人之賁	益之觀	小畜之家人	漸之家人	恒之升	小過之恒	歸妹之兌	大壯之豐	震之小過	巽之姤	觀之訟	同人之鼎	無妄之天	乾之無妄	噬嗑之無妄	鼎之未濟	旅之離	睽之損	大有之鼎	離之噬嗑	大畜之蠱	艮之賁	損之中孚	蠱之鼎	賁之剝																	
卦類	一	二	六	四	五	三	八	九	七	一	二	一	一	五	一	三	一	四	一	一	八	一	六	一	一	七	一	一	四	一	二	八												
來診時刻	己巳時	卯時	丑時	亥時	酉時	未時	庚午時	辰時	寅時	子時	戌時	申時	辛未時	巳時	卯時	丑時	亥時	酉時	壬申時	午時	辰時	寅時	子時	戌時	癸酉時	未時	巳時	卯時	丑時	亥時														
該當卦名	家人之賁	益之觀	巽之姤	漸之家人	中孚之損	小畜之家人	震之豫	大壯之豐	歸妹之恒	恒之升	豐之小過	乾之姤	同人之無妄	無妄之鼎	姤之巽	觀之訟	離之噬嗑	噬嗑之無妄	大有之鼎	旅之離	睽之損	鼎之未濟	兌之歸妹	夫之需	革之隨	隨之革	大過之困	咸之革																
卦類	六	四	二	三	一	五	一	九	七	八	一	二	一	七	一	八	一	六	一	四	一	五	一	三	二	二	三	二	一	九	二	一	〇	三	一	三	五	三	六	三	四	三	二	三

「服用時間」 巳時

「針灸療法」 大都少府 補, 隱白大敦 瀉

「豫候」 若不早治면 不免難治라 其由何也오 木土并立 이라.

이와 같이 『격려진선결』에서는 13가지 方면의 醫易의인 解説과 治療方法을 例示하고 있으며, 卦象에 따른 처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sup>19)</sup>.

## 2) 原文의 一例

上述한 作卦法을 통하여 中孚之損의 卦象에 따른 『격려진선결』의 원문<sup>18)</sup>은 다음과 같다.

### (1) 中孚之損(䷛ ䷖)

太陰濕土, 少陰君火에 太陰濕土가 가임

「脈象」 金脈 = 弦, 緊, 代, 革

「夢兆」 丘陵, 大澤, 壞屋, 風雨, 혹은 飲食不節 혹은 築塙 등의 徵兆

「原因」 肝經風濕으로 인한 脾의 氣血虛寒이나 소위 賊邪이니, 여기에 다시 小腸燥와 腎經寒邪가 加乘함

「誘因」 東쪽에서 雉, 兎의 肉 혹은 果實을 攝取했음에서 起因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春甲乙日에 得病함

「症狀」 頭痛, 肢節痛 혹은 面部黃色, 善噫, 善思, 혹은 飲食不進, 腹滿, 氣逆, 身重, 怠惰, 嗜臥, 혹은 氣急, 喘促, 혹은 中風掉眩, 혹은 口眼喎斜, 혹은 半身不遂 등의 증상이 나타남

「病變」 申酉時에 감소하고 寅卯時에 심하며 未時에 靜退함

「禁忌」 溫한 음식이나 의복을 금하고 오랫동안 濕地에 거처하거나 襦衣를 금함

「藥物治療」 處方 : 吳朮平脾飲

白朮 一錢六分 或二錢二分, 吳茱萸 湯泡 或微炒, 升麻, 麻仁 微炒 各一錢五分 或一錢, 小茴香 鹽炒九分 或一錢六分, 細辛 一錢二分 或六分, 藁本, 羌活 各九分 或六分, 川芎, 柴胡, 獨活 各八分 或四分, 或肉桂 四分 或二分.

「貼數」 五貼

(2) 巽之姤(䷸ ䷫) 太陰濕土, 太陰濕土에 陽明燥金이 가臨. 처방: 白朮清肝湯

(3) 漸之家人(䷴ ䷤) 太陰濕土, 少陽相火에 少陽相火가 가임. 처방: 溫腎活血湯

(4) 益之觀(䷓ ䷓) 太陰濕土, 陽明燥金에 太陽寒水가 가임. 처방: 清膀胱腎湯

(5) 小畜之家人(䷈ ䷤) 太陰濕土, 太陽寒水에 少陰君火가 가임. 처방: 溫腎清膽湯

(6) 家人之賁(䷖ ䷖) 太陰濕土, 厥陰風木에 太陰濕土가 가임. 처방: 膀胱導風湯

(7) 歸妹之兌(䷵ ䷥) 陽明燥金, 少陰君火에 太陰濕土가 가임. 처방: 膀胱導風湯

(8) 恒之昇(䷟ ䷭) 陽明燥金, 太陰濕土에 陽明燥金이 가임. 처방: 平心清肺湯

(9) 小過之恒(䷛ ䷛) 陽明燥金, 厥陰風木에 少陰君火가 가임. 처방: 麥門清心湯

(10) 震之豫(䷏ ䷏) 陽明燥金, 陽明燥金에 太陽寒水가 가임. 처방: 導風溫腎湯

(11) 大壯之豐(䷡ ䷶) 陽明燥金, 太陽寒水에 少陰君火가 가임. 처방: 清心下膽飲

(12) 豐之小過(䷶ ䷛) 陽明燥金, 厥陰風木에 少陽相火

18) 上揭書: pp.44~46.

19) 上揭書: pp.46~104.

가 가임. 처방: 升麻胃風湯

(13) 履之訟(䷅ ䷅) 太陽寒水, 少陰君火에 少陽相火가 가임. 처방: 胃風瀉火湯

(14) 姤之鼎(䷫ ䷱) 太陽寒水, 太陰濕土에 太陰濕土가 가임. 처방: 羌活追風湯

(15) 遯之姤(䷠ ䷫) 太陽寒水, 少陽相火에 少陰君火가 가임. 처방: 麥門清心湯

(16) 無妄之履(䷘ ䷅) 太陽寒水, 陽明燥金에 少陰君火가 가임. 처방: 平心導風湯

(17) 乾之姤(䷀ ䷫) 陽明燥金, 太陽寒水에 太陽寒水가 가임. 처방: 瀉濕溫腎湯

(18) 同人之無妄(䷌ ䷘) 太陽寒水, 厥陰風木에 厥陰風木이 가임. 처방: 地骨降火湯

(19) 睽之損(䷥ ䷨) 厥陰風木, 少陰君火에 陽明燥金이 가임. 처방: 清肺導風湯

(20) 鼎之未濟(䷱ ䷿) 厥陰風木, 太陰濕土에 厥陰風木이 가임. 처방: 地骨脈門湯

(21) 旅之離(䷷ ䷲) 厥陰風木, 少陽相火에 太陽寒水가 가임. 처방: 牡丹活血湯

(22) 噬嗑之無妄(䷔ ䷘) 厥陰風木, 陽明燥金에 太陰濕土가 가임. 처방: 追風溫脾湯

(23) 大有之鼎(䷍ ䷱) 厥陰風木, 太陽寒水에 太陽寒水가 가임. 처방: 活血瀉熱湯

(24) 離之噬嗑(䷲ ䷔) 厥陰風木, 厥陰風木에 厥陰風木이 가임. 처방: 茴香連翹湯

(25) 損之中孚(䷨ ䷛) 少陽相火, 少陰君火에 太陰濕土가 가임. 처방: 附子導風湯

(26) 蠱之鼎(䷑ ䷱) 少陽相火, 太陰濕土에 陽明燥金이 가임. 처방: 清肝瀉濕湯

(27) 艮之賁(䷖ ䷖) 少陽相火, 少陽相火에 少陽相火가 가임. 처방: 清膽追風湯

(28) 頤之剝(䷚ ䷖) 少陽相火, 陽明燥金에 太陽寒水가 가임. 처방: 溫腎濟濕湯

(29) 大畜之蠱(䷙ ䷑) 少陽相火, 太陽寒水에 少陽相火가 가임. 처방: 清膽滋腎湯

(30) 賁之離(䷖ ䷲) 少陽相火, 厥陰風木에 陽明燥金이 가임. 처방: 清肝濟濕湯

(31) 兌之歸妹(䷵ ䷵) 少陰君火, 少陰君火에 太陰濕土가 가임. 처방: 溫脾清熱湯

(32) 大過之困(䷛ ䷮) 少陰君火, 太陰濕土에 厥陰風木

이 가임. 처방: 清心瀉熱湯

(33) 咸之革(䷞ ䷰) 少陰君火, 少陽相火에 少陽相火가 가임. 처방: 清胃益氣湯

(34) 隨之萃(䷐ ䷬) 少陰君火, 陽明燥金에 太陽寒水가 가임. 처방: 滋腎活血湯

(35) 夬之需(䷪ ䷄) 少陰君火, 太陽寒水에 陽明燥金이 가임. 처방: 清肺導風湯

(36) 革之隨(䷰ ䷐) 少陰君火, 厥陰風木에 厥陰風木이 가임. 처방: 導風湯

### 3. 醫易學的 分析

#### 1) 作卦法의 六爻方面

『隔簾診線訣』에 사용된 作卦法은 모두 之卦를 응용하고 있다. 第1原式에 사용된 原卦는 환자 本名(나이)의 天干의 五運數로써 外卦를 來診時支의 六氣數로 內卦로 구성되며, 다시 世爻의 加臨數로 動과 變을 살펴 之卦로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응용된 원리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原卦構成에 응용된 원리는 『隔簾診線訣·啓蒙節要』에서 '五運數는 天干五合(甲己, 乙庚, 丙辛, 丁壬, 戊癸)이며, 六氣數는 地支六破(丑戌, 卯午, 巳申, 子酉, 未辰, 寅亥)의 원리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도표 5】·【도표 6】과 같다.

도표 5] 五運數表      【도표 6] 六氣數表

天干	數	卦名	地支	六氣	六氣數	地支	數	卦名
甲己	5	巽風	子午	少陰君火	二(二變四)	丑戌	5	巽風
乙庚	4	震雷	丑未	太陰濕土	五(五變一)	卯午	4	震雷
丙辛	1	乾天	寅申	少陽相火	七(七變三)	巳申	3	離火
丁壬	3	離火	卯酉	陽明燥金	四(四變二)	子酉	2	兌澤
戊癸	2	兌澤	辰戌	太陽寒水	一(一變五)	未辰	1	乾天
			巳亥	厥陰風木	三(三變七)	寅亥	7	艮山

둘째, 原卦에서 之卦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예1]의 丁酉年(단기 4290년) 2월 15日 17~18時에 甲子生이 진단을 요청할 경우는 外卦는 甲子生(土五巽風)이며, 內卦는 子及酉時(火二兌澤)이기에 風澤中孚卦가 검출된다.

風澤中孚卦에서 山澤損卦로 변화되는 之卦의 원리

는 먼저 風澤中孚卦의 納甲과 納支를 살펴보면, 1爻는 丁巳, 2爻는 丁卯, 3爻는 丁丑, 4爻는 辛未, 5爻는 辛巳, 6爻는 辛卯이다. 다음은 世應關係를 살펴보면 中孚卦는 艮宮에 속하며 四爻가 世가 되며, 初爻가 應이 되는 游魂卦이다. 따라서 動爻는 世爻인 4爻의 納支가 未土인 辛未로 六氣數인 丑未太陰濕土의 象數인 5가 되기에 中孚卦의 5爻가 動爻이다.

따라서 中孚卦의 5爻는 陽爻에서 陰爻로 바뀌어 山澤損의 卦象이 導出된다. 中孚之損의 卦象 변화 과정을 요약하면 【도표 7】과 같다.

【도표 7】 中孚之損의 卦象 變化過程表

— 辛卯	—
— 辛巳	—
世 — 辛未	◆ 丑未太陰濕土(5) → —
— 丁丑	5爻가 動爻 —
— 丁卯	—
應 — 丁巳	—
風澤中孚卦	中孚之損 山澤損卦

## 2) 生理 方面

『격림진선결』에서 中孚之損의 卦象大綱을 運氣學의 으로 “太陰濕土 少陰君火에 太陰濕土가 加臨한다.”<sup>20)</sup>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風澤中孚는 5巽風과 2兌澤으로, 山澤損은 7艮山과 2兌澤으로 구성된다. 原卦는 主運과 主氣에 해당하므로 5巽風의 5는 五運數에 太陰濕土가 主運이 되며, 2兌澤의 2는 六氣數에 子午少陰君火가 主氣에 해당한다. 여기에 다시 太陰濕土가 加臨되는 原理는 中孚卦의 動爻의 象數가 5이므로, 客氣인 太陰濕土가 加臨함에 해당한다. 나머지 상황도 유추하면 동일하다.

둘째, 『啓蒙節要論世』에서 “寅膽, 卯肝, 辰包絡, 巳小, 午心, 未脾鄉. 申胃, 酉肺, 戌大臟, 亥三, 子腎, 丑膀胱.”<sup>21)</sup>이라 하여 臟腑를 地支에 배속하여 卦象의 納支法을 통한 해석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啓蒙節要六親相生相剋法』에서 “生我者爲父母則文書, 我生者爲子

孫, 剋我者爲官鬼, 我剋者爲妻財, 比和者兄弟.”<sup>22)</sup>라 하였고, 『啓蒙節要五邪法』에서 “官生世者爲虛邪, 官剋世者爲賊邪, 世生官者爲實邪, 世剋官者爲微邪, 世官同官者爲正邪.”<sup>23)</sup>라 하여 六親關係를 言及하고 있다. 그리고 『啓蒙節要論官』에서 “子未爲寒丑申風, 巳午燥兮卯戌濕, 寅亥暑兮辰酉熱, 此時卦中宜辨症.”<sup>24)</sup>라 하여 12地支를 六淫에 배속하고 있다.

## 3) 病理 方面

생리 方面의 논술을 근거로 하여 風澤中孚의 卦象을 【도표 8】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도표 8】 風澤中孚卦의 卦象解釋表<sup>25)</sup>

— 辛卯(官鬼)	(肝, 賊邪)	—
— 辛巳(父母)	(小腸, 實邪)	—
世(我) — 辛未(兄弟)	(脾)◆ 丑未太陰濕土(5)→	—
— 丁丑(兄弟)	5爻가 動爻	—
— 丁卯(官鬼)	(肝, 賊邪)	—
應 — 丁巳(父母)		—
風澤中孚卦(艮陽土宮屬, 游魂卦)		
飛神은 辛未, 伏神은 丙戌, 中孚之損 山澤損卦		

병리 方面에 있어 卦象 解釋의 大綱을 『啓蒙節要察病要訣』에서는 “以持世爻, 知病之所在經. 以官鬼與動爻, 察疾崇.”<sup>26)</sup>이라 하였다.

中孚之損의 「原因」은 “肝經風濕으로 인한 脾의 氣血虛寒이니 소위 賊邪이니, 여기에 다시 小腸燥와 腎經寒邪가 加乘함”<sup>27)</sup>이라 하였고, 「誘因」은 “동쪽에서 雉, 兔의 肉 혹은 果實을 섭취함으로써 起因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春甲乙日에 得病”<sup>28)</sup>고 하였다.

「原因」을 분석하면 中孚卦의 世爻(世는 我身-主人이며, 應은 客體-彼方) 納支는 辛未이므로 經絡은 脾臟이

20) 上揭書: p.44.  
21) 上揭書: p.221.

22) 上揭書: p.218.  
23) 上揭書: p.222.  
24) 上揭書: pp.221.  
25) 金興國 編著, 『斷易大全』, 名文堂, 1983年, p.127.  
26) 前揭書: 『隔簾診線訣』, p.223.  
27) 上揭書: p.44.  
28) 上揭書: p.45.

요, 官鬼는 6爻인 辛卯와 2爻인 丁卯이므로 經絡은 肝이며, 動爻는 5爻인 辛巳이므로 經絡은 小腸이다.

즉 未脾에 賊邪인 卯肝濕과, 虛邪인 午小腸燥와, 微邪인 子腎寒이 침범함을 알 수 있다.

『誘因』을 분석하면 『啓蒙節要十二地支所屬』에서 “子水鼠, 丑土牛, 寅木虎, 卯木兔, 辰土龍, 巳火蛇, 午火馬, 未土羊, 申金猴, 酉金雞, 戌土狗, 亥水猪”<sup>29)</sup>라 언급하듯 甲乙木, 卯木兔(雉)의 官鬼인 賊邪가 침범함을 이해 할 수 있다.

中孚之損의 『症狀』인 “頭痛, 肢節痛 혹은 面部黃色, 善噫, 善思, 혹은 飲食不進, 腹滿, 氣逆, 身重, 怠惰, 嗜臥, 혹은 氣急, 喘促, 혹은 中風掉眩, 혹은 口眼喎斜, 혹은 半身不遂 등”<sup>30)</sup>을 분석하면 역시 未脾에 賊邪인 卯肝濕과, 虛邪인 午小腸燥와, 微邪인 子腎寒이 침범한 증상을 유추할 수 있다.

#### 4) 診斷 및 豫候 方面

##### (1) 診斷

『啓蒙節要看月卦辨脈症法』에서 “陽爻가 持世하면 初爻를 子에서 起하여 輪上하고, 陰爻가 持世하면 初爻를 午에서 起하여 輪上한다.”<sup>31)</sup>고 하여 【도표 9】와 같이 20脈을 五行과 陰陽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다.

【도표 9】『隔簾診線訣』의 脈象分類表

五行	脈象의 陰陽區分			
木脈	洪(陽)	長(陽)	虛(陰)	動(陽)
火脈	數(陽)	大(陽)	短(陰)	促(陽)
土脈	沈(陰)	實(陽)	滯(陰)	凝(陰)
金脈	弦(陽中陰)	緊(陽)	代(陰)	革(陰)
水脈	芤(陽中陰)	滑(陽中陰)	浮(陰)	澁(陰)

『脈象』에 관하여 분석하면 『격림진선결』에 기재된 脈象은 世應關係에 있어 應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中孚之損卦에 있어 風澤中孚卦는 4世(辛未) 1應(丁巳)이므로, 巳는 燥이므로 金에 해당하여 金脈인 弦緊代革이 나타난다. 또한 巽之姤卦에 있어 重風巽卦는 6世(辛卯) 3應(辛酉)이므로, 酉는 熱에 해당하므로 火脈인 數大短促이 나타난다.

##### (2) 豫候

『啓蒙節要世爻旺相休囚論』에서 “春令 木旺火相, 夏令 火旺土相, 秋令 金旺水相, 冬令 水旺木相, 四季之月, 土旺金相, 此八者旺相也. 春土金兮, 夏金水兮, 秋木火兮, 冬火土兮, 此八者休囚也.”<sup>32)</sup>라 하였으니, 卦象의 六爻에 따른 六親關係를 설정하여 질병의 輕重과 预后를 파악하고 있다. 즉 自身の 시간에는 질병이 회복되며, 父母의 시간에는 고충이 심해지며, 子孫의 시간에는 조금 편안하며, 妻財의 시간에는 크게 편안하며, 官鬼의 시간에는 크게 불편하다.

따라서 中孚之損의 『病變』인 “申酉時에 감소하고 寅卯時에 심하며 未時에 靜退함”<sup>33)</sup>을 분석하면 世爻(我)가 未土이므로 實邪(子孫)인 金에 해당하는 辛酉時에 病勢가 감소하고, 賊邪(官鬼)인 木에 해당하는 寅卯時에 심하며, 正邪(兄弟)인 土인 未時에 靜退함을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약물의 『服用時間』시간은 ‘고충이 심한 父母의 시간에서 복용하라’고 논술하고 있다.

『豫候』는 疾病의 早期治療를 全篇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데, 그 原因을 賊邪(官鬼)로 인한 疾病의 發展과 正邪(兄弟)로 인한 疾病의 延長을 憂慮하고 있다.

#### 5) 方劑 및 鍼灸 方面

##### (1) 方劑

立方의 원리는 대개가 持世爻로 君藥을 삼고, 官鬼와 動變諸爻로 臣藥을 삼고, 引經藥을 佐使藥으로 한 것이며, 이에 다시 各經의 風寒-暑濕燥 등의 六淫을 따라 加味하게 되는 것이다.

風澤中孚의 처방은 吳朮平脾飲인 “白朮一錢六分 或二錢二分, 吳茱萸 湯泡 或微炒, 升麻, 麻仁 微炒 各一錢五分 或一錢, 小茴香 鹽炒九分 或一錢六分, 細辛一錢二分 或六分, 藁本, 羌活各九分 或六分, 川芎, 柴胡, 獨活各八分 或四分, 或肉桂 四分 或二分”<sup>34)</sup>이다.

處方을 분석하면 4世(辛未)로 脾臟의 風濕을 다스리는 白朮이 君藥이 되며, 官鬼(辛酉, 丁酉)로 肝臟의 寒濕邪를 다스리는 吳茱萸가 臣藥이 되며, 5爻가 動爻(辛巳)로 小腸의 燥邪를 다스리는 小茴香이 臣藥이 된

29) 上揭書: p.216.

30) 上揭書: p.45.

31) 上揭書: p.222.

32) 上揭書: p.223.

33) 上揭書: p.45.

34) 上揭書: p.45~46.



다. 世爻인 脾經의 風을 다스리는 升麻와 燥를 다스리는 麻子仁이 佐藥이 되며, 또한 動爻인 小腸經의 引經藥이 藁本과 羌活이 使藥이 됨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隔簾診線訣-十二經用藥』을 정리하면 【도표 10】과 같다<sup>35)</sup>.

【도표 10】『隔簾診線訣』의 十二經用藥表

子 腎	丑 膀胱	寅 膽	卯 肝	辰 包絡	巳 小腸	午 心	未 脾	申 胃	酉 肺	戌 大腸	亥 三焦
氣寒	氣寒	氣寒	氣寒	氣寒	氣寒	氣寒	氣寒	氣寒	氣寒	氣寒	氣寒
知母	黃柏	青皮	青皮		黃柏	黃柏 一云知母	吳茱	石膏	白芍	石膏	青皮
細辛	麻黃	生薑	吳茱	附子	茴香	桂心	吳茱	吳茱	麻黃	白芷	附子
血寒	血寒	血寒	血寒	血寒	血寒	血寒	血寒	血寒	血寒	血寒	血寒
附子	桂皮	川芎	當歸	川芎	玄胡	當歸	當歸	白朮	乾薑	秦朮	川芎
氣熱	氣熱	氣熱	氣熱	氣熱	氣熱	氣熱	氣熱	氣熱	氣熱	氣熱	氣熱
柴胡	滑石	連翹	柴胡	麥門	赤茯苓	麥門	白芷	葛根	石膏	連翹	連翹
血熱	血熱	血熱	血熱	血熱	血熱	血熱	血熱	血熱	血熱	血熱	血熱
黃柏	黃柏	柴胡	黃芩	牡丹	木通	黃連	大黃	大黃	梔子	大黃	地骨
風	風	風	風	風	風	風	風	風	風	風	風
羌活	羌活	川芎	川芎	柴胡	藁本	細辛	升麻	升麻	防風	白芷	黃芪
濕	濕	濕	濕	濕	濕	濕	濕	濕	濕	濕	濕
澤瀉	茵陳	川芎	川芎白朮	黃芩	車前	黃連赤茯苓	白朮	白朮	白朮	桑白	秦朮
燥	燥	燥	燥	燥	燥	燥	燥	燥	燥	燥	燥
柏子仁	茴香	連翹	當歸	桃仁	茴香	麥門	麻仁	葛根	葛根一云 杏仁	滑石	山藥
引氣	引氣	引氣	引氣	引氣	引氣	引氣	引氣	引氣	引氣	引氣	引氣
肺經肉桂 鹽酒	羌活	川芎柴胡	川芎柴胡	柴胡川芎	藁本羌活	藁本羌活	升麻桔梗 酒	白芷升麻	白芷升麻 葱白	白芷升麻 葛根	柴胡川芎

석하면, 中孚卦의 世應關係에 있어 世는 四爻인 辛未土이다.

그러므로 自經補瀉法에 있어 火榮穴인 大都穴은 父母로 補法을 사용하고, 木井穴인 隱白穴은 官鬼로 瀉法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貼數」를 五貼으로 서술한 것은 世爻가 未土로 土의 象數인 5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 鍼灸

針治療法의 원칙은 이른바 『難經』의 「虛則補其母, 制其穢, 實則補其官, 抑其母」의 원리<sup>36)</sup>에 입각하여 立方한 것이다.

【예 1】 中孚之損卦의 「針灸療法」는 “大都과 少府를 補하며, 隱白과 大敦을 瀉하라.”<sup>37)</sup>고 하였는데 이를 분

他經補瀉法에 있어 脾經의 父母經인 心經(火)의 榮穴인 少府穴을 補하며, 脾經의 官鬼經인 肝經(木)의 井穴인 大敦穴에 瀉法을 시행하여야 한다.

III. 考 察

1. 卦象의 納甲 및 納支

納甲法은 八卦를 10개의 天干數에 配合시키는데, 天干 중 ‘甲’을 그 첫 번째 순서로 삼기 때문에 ‘納甲’이라 하며, 納支法은 또한 納子라 하기도 하며 地支가 各卦의 六爻에 배합되는 법칙을 ‘納支’라 한다<sup>38)</sup>.

35) 上揭書: pp.41~43.

36) 崔昇勳 編著, 『難經入門』 「69難」, 法仁文化社, 1998年, pp.310~312.

37) 上揭書: p.46.

38) 尹暢烈, 『納甲納支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

「啓蒙節要·納甲裝卦訣」에서 “乾金甲子外壬外 子寅辰午申戌, 坎水戊寅外戊申 寅辰午 申戌子, 艮土丙辰外丙戌 辰午申 戌子寅, 震水庚子外庚午 子寅辰 午申戌, 巽木辛丑外辛未 丑亥酉 未巳卯, 離火巳卯外巳酉 卯丑亥酉未巳, 坤土乙未外癸丑 未巳卯 丑亥丑, 兌金丁巳外丁亥 巳卯丑 亥酉未.”<sup>39)</sup>라 하였는데, 【도표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표 11】 八卦의 納甲과 納支表

乾納甲壬 坎納戊 艮納丙 震納庚 巽納辛 離納巳 坤納乙癸 兌納丁							
乾 土戊壬	坎 水子戊	艮 木寅丙	震 土戌庚				
≡ 金申壬	≡ 土戌戊	≡ 水子丙	≡ 金申庚				
≡ 火午壬	≡ 金申戊	≡ 土戌丙	≡ 火午庚				
土辰甲	火午戊	金申丙	土辰庚				
木寅甲	土辰戊	火午丙	木寅庚				
水子甲	木寅戊	土辰丙	水子庚				
巽 木卯辛	離 火巳巳	坤 金酉癸	兌 土未丁				
≡ 火巳辛	≡ 土未巳	≡ 水亥癸	≡ 金酉丁				
≡ 土未辛	≡ 金酉巳	≡ 土丑癸	≡ 水亥丁				
金酉辛	水亥巳	木卯乙	土丑丁				
水亥辛	土丑巳	火巳乙	木卯丁				
土丑辛	木卯巳	土未乙	火巳丁				

## 2. 卦象의 世應 및 飛神과 伏神

### 1) 世應

世란 어떤 宮의 世卦와 游魂, 歸魂卦를 主宰하는 爻를 ‘世’ 또는 ‘世爻’라하며, 간단히 ‘世位’라 한다. 그 중 本宮卦의 世효는 6효가 되고, 一世卦의 世효는 1효가 되고, 二世卦의 世효는 2효가 되고, 三世卦의 世효는 3효가 되고, 四世卦의 世효는 4효가 되고, 五世卦의 世효는 5효가 되고, 游魂卦의 世효는 4효가 되고 (同四世爻), 歸魂卦의 世효는 3효가 된다(同三世爻)<sup>40)</sup>.

應이란 卦의 六爻를 上下로 보고, 양쪽의 서로 마

주보고 交感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육효 가운데 1효와 4효, 2효와 5효, 3효와 6효의 對應하는 효로 나누어진다<sup>41)</sup>.

따라서 世應關係에 있어 ‘世’라는 것은 어떤 卦가 ‘八宮卦’ 체계에서 어떤 宮의 몇 번째 世卦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 世爻가 世가 된다. ‘應’은 世卦之爻를 確定한 이후 그 효가 만약 1효이면 4효, 2효이면 5효, 3효이면 6효와 상응함을 뜻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up>42)</sup>. 요약하면 【도표 12】와 같다.

【도표 12】 卦位에 따른 世應表

世位	乾金宮	兌金宮	離火宮	巽木宮	震木宮	坎水宮	艮土宮	坤土宮	應位
6爻	重天乾	重澤兌	重離火	重巽風	重震雷	重坎水	重艮山	重坤地	3爻
1爻	天風姤	澤水困	火山旅	風天小畜	雷地豫	水澤節	山火賁	地雷復	4爻
2爻	天山遯	澤地萃	火風鼎	風火家人	雷水解	水雷屯	山天大畜	地澤臨	5爻
3爻	天地否	澤山咸	火水未濟	風雷益	雷風恒	水火未濟	山澤損	地天泰	6爻
4爻	風地觀	水山蹇	山水蒙	天雷無妄	地風升	澤火革	火澤睽	雷天大壯	1爻
5爻	山地剝	地山謙	風水渙	火雷噬嗑	水風井	雷火豐	天澤履	澤天夬	2爻
4爻游魂卦	火地晉	雷山小過	天水訟	山雷頤	澤風大過	地火明夷	風澤中孚	水天需	1爻
3爻歸魂卦	火天大有	雷澤歸妹	天火同人	山風蠱	澤雷隨	地水師	風山漸	水地比	6爻

### 2) 飛神과 伏神

패상의 八神은 用神(主人), 原神(用神을 生해주는 것), 飛神(地支의 子寅, 辰午, 申戌을 말함), 伏神(卦中에 用神이 沒된 것), 忌神(用神을 克하는 것), 仇神(原神을 克하는 것), 進神과 退神이 있다<sup>43)</sup>.

飛神이란 各卦가 陰陽의 爻變에 따라 自宮에 分屬됨에 있어서 己身이 되는 世爻는 처음에 그 定處가 없으므로 本宮卦의 所值되는 爻에 따라 그 命名을 얻어 變化의 用事를 일으키게 되니, 이 飛人來往하는 定爻의

41) 上揭書: p.361.

42) 上揭書: p.205.

43) 金于齊 외1人, 『卜筮正宗精解』, 明文堂, 1986年, p.121.

誌 12卷 2號, 1999, pp.6~14.

39) 前揭書: 『隔簾診線訣』, pp.218~219.

40) 『周易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p.205.

各相을 '飛神'이라고 한다<sup>44)</sup>.

다시 말하면 金宮의 本主卦되는 乾은 六陽의 初爻가 陰으로 變하면 姤卦(☶) 되나니 이 陰變한 乾의 初爻를 '世爻'라 하고, 이 世爻에 飛人하여 變化의 用事를 일으켜 乾卦가 姤卦로 變하게 한 것을 '飛神'이라고 한다는 뜻이다.

伏神이란 飛神의 爻位와 같은 本宮卦의 位置에 있으면서 飛神이 用事할 때에 潛伏되어, 일어나지 않으므로 '伏神'이라고 한다. 즉 垢卦의 初爻가 飛神이 될 때에는 伏神은 그 本卦인 乾의 初爻에 潛伏하여 있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伏神은 本宮卦爻의 世爻에 해당되나니 本卦의 軌道를 도리어 따른다.

여기에서 飛伏의 定位關係를 살펴보면 乾卦의 伏神은 坤卦에 있고, 震卦의 伏神은 巽卦에 있고, 兌卦의 伏神은 艮卦에 있고, 離卦의 伏神은 坎卦에 있게 된다. 이는 그 卦象이 相反되는 상대성의 원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乾의 上爻(六爻)에 飛神이 있으면 坤의 上爻에 伏神이 있고, 坤上爻가 飛神이면 乾上爻는 伏神이 되며, 震과 巽·兌와 艮·離와 坎의 純卦는 모두 乾坤兩卦와 같이 飛伏을 이루게 되어 이를 '純卦의 飛伏定位'<sup>45)</sup>라 한다.

【도표 13】 八原卦의 之卦表

本卦	乾爲天				兌爲澤				離爲火				震爲雷				巽爲風				坎爲水				艮爲山				坤爲地													
初爻	上	五	四	三	二	初	上	五	四	三	二	初	上	五	四	三	二	初	上	五	四	三	二	初	上	五	四	三	二	初	上	五	四	三	二	初	上	五	四	三	二	
變卦	二	五	一	一	一	四	六	二	二	二	四	一	七	三	三	三	二	八	四	四	四	四	三	二	八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之卦	大有	小畜	履	同人	姤	履	節	夬	隨	困	豐	同人	賁	大畜	旅	隨	復	豐	歸妹	豫	井	蠱	姤	渙	漸	小畜	渙	師	困	比	節	漸	旅	剝	蠱	賁	剝	比	豫	謙	師	復

또한 變卦의 垢初爻가 飛神이면 本卦의 乾初爻는 伏神이요, 變卦인 遯의 2爻가 飛神이면 乾의 2爻가 伏神이요, 否卦의 3爻가 飛神이면 乾卦의 3爻는 伏神이

오, 觀卦의 4爻가 飛神이면 乾의 4爻가 伏神이 되고, 剝卦의 5爻가 飛神이면 乾의 5爻는 伏神이 되며, 5爻에서 極하여 游魂卦의 晉卦 4爻로 내려가 飛神이 되면 이에 따른 乾卦 4爻는 伏神이 되고, 歸魂卦인 大有의 3爻로 내려가 飛神이 되면 乾卦는 坤으로 變卦(乾宮末卦로 歸魂還變이 됨)하여 3爻에 伏神이 있게 되나니, 이를 '本宮變卦의 飛伏定位'<sup>46)</sup>라 한다.

요약하면 飛神은 바로 世로서 근본자리에 위치하며, 각 卦가 陰陽의 爻變에 따라서 世爻는 처음에 그 定處가 없으므로 本宮卦가 소속되는 爻에 따라 그 命을 얻어 變化의 用事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伏神은 飛神의 爻位와 같은 本宮卦의 위치하며, 飛神이 用事할 때 潛伏되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 3) 卦象의 種類

#### (1) 之卦

之卦란 占을 치는 과정에서 一爻를 얻은 것을 '遇卦'라고 말한다. 만일 遇卦에 變卦가 있으면 그 變化를 통하여 또 다른 별개의 一卦를 얻게 되는데, 그 變化된 卦를 '之卦'라 한다<sup>47)</sup>. 之卦는 64原卦의 각각 6變 되기에 384之卦가 있고, 아래 【도표 13】는 8原卦의 6變인 48之卦의 例이다<sup>48)</sup>.

#### (2) 重卦

『周易』은 64卦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를 大成卦라 한다. 大成卦는 8개의 小成卦가 錯綜하여 성립된 것으로, 64卦가 서로 중첩하여 구성되므로 '重卦'라 한다<sup>49)</sup>.

44) 姜天奉, 『啓蒙傳疑研究』, 『退溪學報 第4輯』, 退溪學研究院 1974年, p.122.

「飛伏訣解說」: “飛者, 世爻初無定處, 隨本宮所值之爻, 而命之故, 謂飛也, 伏者, 方飛神用事之時, 潛伏不起故, 謂伏也, 以乾宮初世, 爲天風垢, 則伏神, 亦在初世, 而初世所在之卦, 故天風垢, 還爲重乾天, 而初世爲甲子也, 啓蒙覆釋, 飛伏說”

45) 上揭書: p.123.

46) 上揭書: p.123.

47) 前揭書: 『周易辭典』, p.60.

48) 吳澤鎮 編著, 『奇門遁甲秘經』, 明文堂, 1981年, pp.155~162.

즉 64卦의 大成卦를 重卦라 부르고, 천지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小成卦로는 부족하므로 大成卦(重卦)가 구성되며<sup>50)</sup>, 重卦의 당위성을 『周易說卦』에서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劃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sup>51)</sup>에 찾을 수 있다.

### (3) 倒轉卦

卦象의 6효가 모두가 上下가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 이를테면 復(☱)과 剝(☶), 蒙(☶)과 屯(☳) 등 모두 28쌍으로 56卦가 있다<sup>52)</sup>.

### (4) 不倒轉卦

內卦·外卦가 相交하여 뒤집어도 卦象이 같은 모양인 不易의 不變卦로 乾(☰), 坤(☷), 坎(☵), 離(☲), 大過(☱), 中孚(☴), 小過(☴), 頤(☶)의 8卦가 있다<sup>53)</sup>.

### (5) 錯綜卦

內卦와 外卦가 相交하여 內卦가 外卦가 되고 外卦가 內卦가 되어 錯綜한 卦를<sup>54)</sup> 뜻한다. 錯綜卦는 64卦 가운데 기본 8卦를<sup>55)</sup> 제외한 56卦가 각각 錯綜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테면 夬(☱)와 履(☱), 大有(☲)와 同人(☲), 大壯(☳)과 无妄(☳) 등을 의미한다.

### (6) 全變卦

陽爻가 陰爻가 되고 陰爻가 陽爻가 되는 것으로 모

든 爻가 變한 것이다. 이를테면 離(☲)과 坎(☵), 兌(☱)과 艮(☶), 乾(☰)과 坤(☷), 夬(☱)과 剝(☶) 등의 경우이다.

### (7) 互卦

互卦는 六劃의 卦 중에서 第2爻에서 第4爻까지, 第3爻에서 第5爻까지로 이루어진 두 개의 三劃爻를 互體, 또는 互卦라고 말한다. 그 중에서 2에서 4爻까지를 ‘內互’라 하며, 3에서 5爻까지를 ‘外互’라고 한다. 六劃卦에는 본래 上下 두 개의 三劃卦가 있고, 다시 內互, 外互로 분리하므로 4개의 三劃卦를 포함하게 되어 ‘互體’를 ‘一卦備四卦’, 또는 ‘一卦含四卦’라 한다<sup>56)</sup>. 互卦의 당위성을 『周易·繫辭下』에서 “其初難知, 其上易之, 本末也. 初辭擬之, 卒成之終. 若夫雜物, 撰德, 辨是與非, 則非其中爻, 不備.”<sup>57)</sup>에 찾을 수 있다.

### (8) 辟卦

辟卦를 漢代 易家들은 六十四卦 중의 十二個의 特殊한 卦形을 取하여 이를 1년 12월의 月候와 배합하여 自然界 萬物의 ‘陰陽消息’의 뜻을 나타내었으니 이를 ‘十二辟卦’라 하며 ‘消息卦’, ‘月卦’, ‘候卦’, ‘十二消息卦’, ‘十二月卦’, ‘天子卦’ 등으로도 부른다. 즉 子(十一月)復·丑(十二月)臨·寅(一月)泰·卯(二月)大壯·辰(三月)夬·巳(四月)乾·午(五月)姤·未(六月)遯·申(七月)否·酉(八月)觀·戌(九月)剝·亥(十月)坤卦를 뜻한다<sup>58)</sup>.

### (9) 序卦

‘序卦傳’은 孔子의 十翼<sup>59)</sup>가운데 一篇으로 64卦의 배열 순서의 당위성을 밝힌 것으로 卦象의 깊은 의미는 논술하지 않고 있으나<sup>60)</sup>, 사물의 변화와 推衍의 기본 과정을 밝혀 上經의 30卦는 天道를 下經의 34卦는 人道를 밝힌 것이다<sup>61)</sup>.

49) 錢世明, 『周易卦爻辭通說』, 中國和平出版社, 1988年, p8.  
 50) 金景芳 외1人, 『周易全解』, 吉林大學出版社, 1989年, pp1~2.  
 51)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 『下』, 傳統文化研究會, 1998年, pp.601~602.  
 52) 中國孔學會, 『明道易經』 『八卦相綜象三十六卦註』, 民國65年, p.91.  
 53) 上揭書: p.91.  
 54) 張春華, 『奇門易經』, 智揚出版社, 民國75年, p25, p27  
 “錯者, 陰與陽相對也 …… 如(乾)錯(坤), (兌)錯(艮)”  
 “綜字之義 …… 或上或下, 顛之倒之者也. …… 如(巽)即爲(兌), (艮)即爲(震)”  
 55) 重天乾, 重兌澤, 重火離, 重震雷, 重風巽, 重水坎, 重山艮, 重地坤은 기본 8卦이다.

56) 前揭書: 『周易辭典』, p.134.  
 57) 前揭書: 『懸吐完譯周易傳義』 『下』, p.593.  
 58) 張介賓, 『類經圖翼』 『運氣篇』, 大星文化社, 1988年, pp28~29.  
 59) 黃壽祺 외1人, 『周易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pp.40~41.  
 60) 前揭書: 『周易全解』, “‘序卦傳’의精義, 前人多不了解 …… ‘序卦傳’本身的‘有天地然後 萬物生焉, 乾坤其易之蘊邪. 乾坤其易之門邪.’”  
 61) 劉平, 『易經圖解』, 文化藝術出版社, 1990年, pp.4

(10) 雜卦

『雜卦傳』은 孔子의 十翼 가운데 一傳이며, '雜'은 旁通과 錯綜의 뜻을 지닌다(62). 『雜卦傳』은 또한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卦象을 보충하고 요약하고 있으며(63), 兩卦의 특징을 분명하게 대비하여 배열하고 있다(64).

(11) 游魂卦

各宮의 本宮純卦가 第五爻까지 변하고 上爻는 변하지 않고 이미 변한 第四爻가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卦를 '游魂卦'라고 한다. '八宮卦' 가운데 유혼괘는 晉·明夷·中孚·大過·頤·訟·需·小過의 8괘가 있다(65).

(12) 歸魂卦

各宮의 本宮卦는 여섯 번의 변화를 거쳐 '游魂卦'를 이루고, 이미 변화한 아래의 三爻가 다시 한번 변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卦를 '歸魂卦'라고 한다. '八宮卦' 가운데 귀혼괘는 大有·師·漸·隨·蠱·同人·比·歸妹의 8괘가 있다(66).

4) 卦象 醫易學的 運用

(1) 來診時에 의한 作卦法

『격령진선결』에 응용된 작괘법으로 外卦는 本命(天干五運數), 內卦는 來診時의 六氣數로 결정하며 世爻로 病이 所在한 經絡을 해석하며, 官鬼로 疾病을 해석한다.

(2) 梅花易數에 의한 作卦法

梅花易數에 의한 作卦法(67)은 醫師가 진찰하는 날의 年·月·日의 合數를 8數로 나누어 上卦를 作하고, 年·月·日·時의 合數를 8로 나누어 下卦를 作하는 방법이다.

2~43.

62) 前掲書: 『周易譯註』, pp.661~662.

63) 前掲書: 『周易全解』, p.552.

“『雜卦傳』縱文字表面上看, 未嘗不可以理解……『雜卦傳』也論述了, 六十四卦, 而其先後次序與『序卦傳』不一祥”

64) 前掲書: 『周易譯註』, pp.662~663.

65) 前掲書: 『周易辭典』, p.744.

66) 上掲書: p.216.

67) 許紹龍 發行, 『梅花易數與測字』, 隆泉書局, 民國75年, pp.29~31.

【예4】 예를 들면 의사가 진찰하는 날의 年支가 寅이면 象數가 3이 되고, 月支가 4月이면 象數가 4이고, 17日이면 象數가 17로 上卦의 合數는 24로 8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다. 0은 8의 배수이므로 上卦는 8坤卦에 해당한다. 下卦는 時支의 象數와 上卦의 合數를 모두 합하여 8로 나눈 象數로 구성되는데, 만약 환자가 巳時에 진찰을 요구한다면 6이 되므로 上卦의 合數인 24와 下卦의 合數인 6을 합하여 8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므로 下卦는 6坎水에 해당한다. 따라서 地水師卦가 구성된다.

動爻를 찾는 방법은 年·月·日·時의 象數를 모두 합하여 6으로 나누면(3+4+17+6=30÷6) 나머지가 0이므로 6으로 보고 六爻를 動爻로 삼아 醫易的인 活用을 한다.

【도표 14】 梅花易數에 응용된 年月日時의 象數表

(年)子年…1	(月)正月…1	(日)1日…1	(時)子時…1
丑年…2	二月…2	2日…2	丑時…2
{ }	{ }	{ }	{ }
亥年…12	十二月…12	30日…30	亥時…12

(3) 病候에 의한 作卦法

佐藤大龍의 『漢方易醫學의 臨床療法』의 作卦法(68)은 病候에 의한 六爻作卦法이다. 즉 上爻에서 病位(陰陽證)를, 五爻에서 四要인 衛分과 營分은 陽爻로 氣分과 血分은 陰爻로, 四爻에서 經絡을, 三爻에서 病證인 寒熱을, 二爻에서 病勢의 虛實을, 初爻에서 病因(陽: 風邪水邪, 陰: 燥邪濕邪)을 이해하여 配象을 구성하고 있다.

佐藤씨는 약물의 선택에 있어, 3爻에서 寒熱을 구분하여 寒證(--)이면 溫熱藥을 사용하고, 熱證(-)이면 寒涼藥 사용하고 있다. 2爻에서 虛實을 구분하여 虛(-)이면 補藥을 사용하고, 實(-)이면 瀉藥을 사용하고 있다. 1爻에서 病인을 구분하여 水邪나 濕邪(-- )인 경우는 燥藥을 사용하고, 風邪나 燥邪(-)인 경우는 潤藥을 사용하여 아래 【도표 15】와 같이 64處方을 제시하고 있다.

68) 佐藤大龍 著, 『漢方易醫學의 臨床療法』, 翰成社, 1986年.

【도표 15】 佐藤大龍의 64卦에 따른 64處方

上 卦 下卦	乾爲天	兌爲澤	離爲火	震爲雷	巽爲風	坎爲水	艮爲山	坤爲地
乾爲天	大靑龍湯	桂麻各半湯	白虎鎮逆湯	桂枝厚杏湯	越婢加朮湯	小靑龍湯	白虎加朮湯	桂枝朮芩湯
兌爲澤	麻子仁丸	溫瀉潤湯	麥門冬湯	補中益津湯	茵蔯承氣湯	溫瀉燥湯	茵陳五苓散	補中益氣湯
離爲火	柴胡龍牡湯	厚枳桂芍湯	柴胡桂枝湯	厚半薑芍湯	大柴胡湯	栝實桂枝飲	柴胡桂乾湯	半夏厚朴湯
震爲雷	桃核承氣湯	桂枝地黃丸	酸棗仁湯	芎歸膠艾湯	大黃牡丹皮湯	桂枝地黃丸	猪苓湯	當歸芍藥散
巽爲風	升葛麻杏湯	葱豉杏仁湯	升葛芍杏湯	香蘇杏仁湯	升葛麻半湯	葱豉半夏湯	升葛芍半湯	香蘇半夏湯
坎爲水	清潤六味丸	麻黃甘草湯	知柏八味丸	芪桂八味丸	清燥六味丸	麻黃細辛湯	知柏五苓散	芪朮八味丸
艮爲山	大黃解毒湯	桂芍大黃湯	半夏瀉心湯	小健中湯	知母解毒湯	薑桂黃芩湯	朮芩瀉心湯	薑桂朮芩湯
坤爲地	防風通聖散	潤燥逐瘀湯	地梔逍遙散	十全大補湯	厚朴通聖散	燥濕逐瘀湯	丹梔逍遙散	十全燥補湯

다섯째, 方劑 方面에 있어 立方의 원리는 대개 持世  
 說로 君藥을 삼고, 官鬼와 動變諸說으로써 臣藥을 삼고,  
 引經藥을 佐使藥으로 삼고 있다.

#### IV. 結 論

論者は『隔簾診線訣』에 기재된 醫易學的 運用에 관  
 하여 本論과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  
 고하는 바이다.

첫째, 『隔簾診線訣』에 사용된 作卦法에 있어 原卦  
 는 환자 本名(나이)의 天干의 五運數로써 外卦를 來診  
 時支의 六氣數로 內卦로 구성되며, 다시 世爻의 加臨數  
 로 動과 變을 살펴 之卦로 질병의 변화를 살피고 있다.

둘째, 生理 方面에 있어 原卦는 主運과 主氣로 해  
 석하고, 之卦는 客氣가 加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다.

셋째, 病理 方面에 있어 卦象 해석의 大綱을, 動變  
 世官 諸說에서 疾病의 所崇과 主客과 本末을 밝힘에 世  
 爻로 病이 所在한 經絡을 밝히고 官鬼로 疾病을 해석  
 하고 있다.

넷째, 診斷과 豫候 方面에 있어 脈象은 世應關係에  
 있어 '應'으로 해석하고, 卦象의 六爻에 따른 六親關係  
 를 설정하여 旺相休囚와 相生相剋으로써 綜合하여 질  
 병의 輕重의 예후를 파악하고 있다.

여섯째, 鍼灸 方面에 있어 治法은 世爻를 我로 삼  
 아 '虛則補其母, 制其讎, 實則補其官, 抑其母'의 원리에  
 입각하여 自經補瀉와 他經補瀉를 동시에 施行하고 있  
 다.

일곱째,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의사학적인 문  
 헌에는 李鳳岡에 관한 기록이 없고, 또한 『線訣』의 원  
 문을 통한 診線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논자의 생각으로는 『線訣』에 기재된 醫易學的인 內容  
 을 파악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진단한다면, 실맥(線)을  
 통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하나의 양식에 지나지  
 않기에 실맥(線)의 형태가 어떠한 상관없다고 생각  
 한다.

#### V. 參考文獻

- 1) 李鳳岡, 『神授秘傳隔簾診線訣』, 杏林書院, 檀紀  
4290年.
-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五運行大論」, 東洋醫學  
研究院, 1981年.
- 3) 崔昇勳 編著, 『難經入門』, 「69難」, 法仁文化社,  
1998年.
- 4) 張介賓, 『類經圖翼』, 「運氣篇」, 大星文化社,  
1988年.

- 5) 『周易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 6)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周易傳義』『下』, 傳統文化研究會, 1998年.
- 7) 金興國 編著, 『斷易大全』, 明文堂, 1983年.
- 8) 金于齊 외1人, 『卜筮正宗精解』, 明文堂, 1986年.
- 9) 姜天奉, 『啓蒙傳疑研究』『退溪學報 第4輯』, 退溪學研究院 1974年.
- 10) 尹暢烈, 『納甲納支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卷 2號, 1999年.
- 11) 中國孔學會, 『明道易經』『八卦相綜象三十六卦註』, 民國65年.
- 12) 吳澤鎮 編著, 『奇門遁甲秘經』, 明文堂, 1981年.
- 13) 張春華, 『奇門易經』, 智揚出版社, 民國75年.
- 14) 錢世明, 『周易卦爻辭通說』, 中國和平出版社, 1988年.
- 15) 金景芳 외1人, 『周易全解』, 吉林大學出版社, 1989年.
- 16) 黃壽祺 외1人, 『周易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 17) 劉平, 『易經圖解』, 文化藝術出版社, 1990年.
- 18) 佐藤大龍 著, 『漢方易醫學的臨床療法』, 翰成社, 1986年.
- 19) 白雲飛, 『六爻學全書』, 東洋書籍, 1976年.
- 20) 許紹龍 發行, 『梅花易數與測字』, 隆泉書局, 民國75年.